

# 다니엘서 - 제162편

로마의 예언의 때: 환상의 베일을 벗기다

Jeff Pippenger

2024-03-27

로마가 그 비전을 세우고, 로마는 그 "때"에 드러난다. 이것은 화이트 자매가 자명하다고 이해되어야 할 바를 밝힌 진술이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지만, 또한 펼쳐진 책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교훈들은 분명하며, 신비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다니엘서에서와 동일한 예언의 계통이 다시 다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들은 반복하셨는데, 이는 그것들에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함을 보여 주신다. 주께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9, 8.

"주께서는 그다지 중대한 결과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며," 로마와 관련된 "때"는 거듭거듭 반복된다. 로마와 관련된 그 "때"를 이해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지니니, 이는 환상을 확립하는 주제로서의 로마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권의 통치 기간인 천이백육십 년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차례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들이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니엘 7:25.

또 내가 들으니,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라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흩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마치리라 하더라. 다니엘 12:7.

그러나 성전 바깥뜰은 제외하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2.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 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3.

그리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2:6.

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도록 하였으니,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2:14.

또 그에게 큰 말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계속할 권세도 주어졌다. 요한계시록 13:5.

이 일곱 가지 직접적인 언급은 로마의 서로 다른 구체적인 예언적 특성들을 제시한다. 로마는 바로 그 구절들에서 드러난다. 화이트 자매는 이러한 기간들이 "삼 년 반 또는 1260일"로도 표현된다고 덧붙인다. 성경에서는 "삼 년 반"이나 "천이백육십 일"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화이트 자매는 단지 그 일곱 가지 언급의 계산을 그에 따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13장(1-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며, 용이 그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 상징은,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믿어 왔듯이, 고대 로마 제국이 한때 지녔던 권력과 보좌와 권위를 계승한 교황권을 나타낸다. 그 표범 같은 짐승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그에게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고 자기 입을 열었다. 또 그에게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도록 허락되었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위에 권세가 주어졌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대한 묘사와 거의 동일한 이 예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교황권을 가리킨다.

"그에게 사십이 달 동안 계속하게 할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다. "나는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음을 보았다." 또 이렇게 말한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라." 이 사십이 달은 다니엘 7장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 또는 1260일과 같은데, 이는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앞선 장들에서 언급한 대로 서기 538년에 교황권이 최고 권세를 잡으면서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다. 그때 프랑스 군대에 의해 교황이 포로가 되었고, 교황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대쟁투, 439.

로마를 "드러내는" "때"로 삼 년 반을 또한 간주할 수 있는 영감의 권위가 있을 때, 로마에 대한 다른 성경적 언급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4:25.

엘리야의 삼 년 반은 그 시기를 두아디라 교회에서 교황 로마를 상징하는 이세벨과 연결한다.

그러나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여 내 종들을 가르치며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함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0, 21.

이세벨로 대표되는 네 번째 교회에 주어진 "시간"은 또한 "공간"이기도 하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야고보서 5:17.

42개월이 1,260일과 동일하다는 점을 논평하면서, 화이트 자매는 그 기간을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그 날들'이라고 지적한다.

여기 언급된 기간들—'마흔두 달'과 '천이백육십일'—은 서로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때를 똑같이 가리킨다. 교황권의 1260년 지배는 서기 538년에 시작되어, 따라서 1798년에 종결되었다. 그때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들어와 교황을 포로로 잡았고, 그는 유배 중에 죽었다. 곧이어 새 교황이 선출되었지만, 그 이후 교황권은 예전에 가졌던 권력을 다시는 행사하지 못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1260년의 전 기간 동안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불같은 시련의 때를 단축하셨다. 교회에 닥칠 '큰 환난'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22.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 박해는 1798년 이전에 종식되었다. 대쟁투, 266.

그리스도와 화이트 자매는 '그날들'이라는 표현을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때'로 규정한다. 다니엘은 11장 31절에서 교황권이 세상의 보좌에 올려진 뒤 일어난 박해에 대해 말할 때, 그 박해의 때를 '여러 날'이라고 말한다.

그의 편에 군대가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그는 언약을 거스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아침으로 타락하게 하려니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큰일을 행하리라. 백성 가운데 깨달음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넘어지리라. 다니엘 11:31-33.

로마는 그것과 연계된 예언의 때와 더불어 드러난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사람이 '자기 때'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멸망할 그 환상을 로마가 성취한다는 사실은, 왜 그 예언적 시간이 그렇게 자주, 또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는지를 밝힌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중대한 일이 아닌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앞선 구절들에서는 그 기간의 끝도 표시되어 있다.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질 때에 조금의 도움을 받겠으나 많은 이들이 아침으로 그들에게 가담하리라. 또 그들 중 지혜 있는 자 몇이 넘어져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며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하려 하니, 아직 정한 때가 남아 있으므로 끝날 때까지 그러하리라. 다니엘서 11:33-35.

"끝의 때"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해 남겨져 있다." 히브리어로 "appointed"는 "moed"이며, 정한 때 또는 약속을 뜻한다. 다니엘서에서 "정한 때"의 예언적 관련성과 중요성은 그것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 가운데, 혹 있다 하더라도 극히 소수만이 1989년이 "끝의 때"였고, 그러므로 1989년이 "정한 때"였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운동을 위한 지식의 봉함을 푸실 때로 정하신 약속된 때였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는 "정한 때"가 "끝의 때"의 도래를 표시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다니엘서 8장에서 이 예언적 상징이 제시된다.

나는 울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가 내가 서 있는 데로 가까이 오니, 그가 오매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으라. 이 환상은 종말의 때를 위한 것이니라.” 하였다. 그가 내게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니, 그가 나를 만져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진노의 끝날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한 때에 끝이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8:16-19.

11장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들에서 '끝의 때'(time of the end)라는 표현에 쓰인 '끝'(end)은 'appointed'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와는 다른 단어이다. '끝의 때'는 정한 때에 시작되는 한 기간을 가리킨다. '정한 때'(moed)는 약속된 시점이며, '끝의 때'(히브리어 'gets')는 정한 때에 시작되는 기간이다. 로마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때'이며, 그 '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끝과 그 끝 이후에 이어지는 기간이 여러 증인들에 의해 증거된다. 다니엘 11장 24절에서는 이교 로마가 '한 때'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상징적인 “한 때”는 360년인데, 성경의 한 해가 360일이기 때문이다. 이교 로마는 “한 때” 동안 통치했고, 교황 로마는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통치했다. 현대 로마는 상징적인 “한 시간” 또는 상징적인 “사십이 달” 동안 통치한다. 1844년 이후에는 예언적 시간이 없으므로, “한 시간”과 “사십이 달”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인류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교 로마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부터 330년에 콘스탄틴이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길 때까지 절대적으로 통치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꺾이실” “언약의 군주”로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구절들이 이교 로마를 말하고 있음을 안다. 그때 통치하던 권세는 이교 로마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은 이교 로마를 지목한다.

그의 자리에 비천한 자가 일어나리니, 사람들이 그에게 왕국의 존귀를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평온히 와서 아침으로 나라를 얻으리라. 홍수 같은 군세로 그 앞에서 그들이 휩쓸려 부서질 것이요, 참으로 언약의 지도자까지도 넘어지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는 속임수로 행하리니, 그는 적은 무리와 함께 올라와 강성하게 되리라.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평온히 들어가며,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노략물과 탈취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나누어 줄 것이며, 또한 그는 한동안 견고한 요새들을 대적할 계책을 세우리라. 다니엘 11:21-24.

그 구절들의 마지막 어구에 있는 "against"라는 단어는 실제로 "from"을 의미하며, 그 구절은 이교 로마가 통치할 것이다(그의 계략을 예견하다) "from" 그 요새(로마 시)에서 삼백육십 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24절.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평온히 들어가리라. 또한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리라.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나누어 줄 것이요, 참으로 그는 한동안 요새들에 대하여 그의 계책을 세우리라.

로마의 시대 이전에 나라들이 귀중한 속주와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는 통상적인 방식은 전쟁과 정복이었다. 이제 로마는 선조들도 그 선조들의 선조들도 해 보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즉 이러한 영토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넘겨받는 것이었다. 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관례, 곧 왕들이 유증으로 자기 왕국을 로마에 남기는 관례가 이제 시작되었다. 로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대한 속주들을 손에 넣었다.

이처럼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로부터 적지 않은 이점을 얻었다. 그들은 친절과 관대함으로 대우받았다. 마치 전리품과 약탈물이 그들 사이에 분배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보호받았고,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 평안과 안전 속에 안식을 누렸다.

이 절의 후반부에 대하여, 뉴턴 주교는 그것을 요새들을 상대로가 아니라 요새들로부터 계책을 미리 꾸미는 의미로 본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일곱 언덕의 도시라는 견고한 요새에서 바로 그렇게 했다. '한 때 동안이라;' 의심할 바 없이 예언적 기간, 즉 360년이다. 이 연수는 어디에서부터 기산해야 하는가? 아마 다음 절에 제시되는 사건부터일 것이다.

'25절.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대적하여 그의 힘과 용기를 떨쳐 일으킬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려고 떨쳐 일어나겠으나, 그는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거슬러 계략을 도모할 것임이라.'

"23절과 24절에 이르면 우리는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동맹, 곧 기원전 161년 이후의 시점으로 내려오게 되며, 로마가 보편적 지배권을 획득한 때에 이르게 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절은 남방 왕 곧 이집트를 향한 강력한 원정과, 크고 강한 군대들 사이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전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이 무렵의 로마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는가?—그렇다. 그 전쟁은 이집트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었고, 그 전투는 악티움 해전이였다. 이 충돌로 이르게 된 정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71-273.

다음 절들에서 다니엘은 정한 때와 끝을 다시 언급한다.

그는 큰 군대를 이끌고 남방 왕을 치기 위해 권세와 용기를 떨쳐 일어날 것이요, 남방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로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나, 그는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계책을 꾸밀 것임이라. 참으로 그의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 버릴 것이며,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의 마음이 다 악을 도모하여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겠으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리니, 끝은 아직 정해진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슬러 일을 벌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돌아와 남쪽으로 나아가려니와, 이번은 이전과도 이후와도 같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1:25-29.

8장에서 가브리엘은 "chazon", 곧 2,520년의 환상이 정한 때에 끝나고, 그 후 "끝의 때"로 표현되는 기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문에서 정한 때란 이교 로마가 세계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360년의 끝을 의미한다. 이 본문에는 "끝의 때"가 없다. 그 역사적 기간의 끝에 가서 풀리도록 봉함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8장에서, 이천삼백 년과 같은 때에 끝난 이천오백이십 년, 곧 "진노의 마지막 끝"에 관한 이상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으니, 이는 두 이상의 정한 때인 1844년에 셋째 천사의 빛이 개봉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11장 30절부터 36절에서는, 1798년에 "첫 번째 진노"의 끝에서, 첫째 천사의 빛이 개봉되는 때에 "마지막 때"로 표상된 한 기간이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교 로마의 시간 예언에는 마지막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삼백육십 년이 끝나는 시점을 밝혀 주는 정한 때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1798년의 그 정한 때와 1844년의 그 정한 때는 둘 다 “마지막 때”로 표상된 기간에 이해되어야 할 한 기별을 개봉하였다.

로마는 그 예언적 시기 안에서 예언이 묘사하는 그대로 드러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마흔두 달", "천이백육십 일", "삼 년 반" 등은 중세 암흑기에 교황권이 지배하던 기간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 가운데 일부이다. 밀러파 운동을 14만 4천인의 운동과 연결해주는 기간은 백이십육 년이다. 백이십육은 또한 천이백육십 일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것의 십일조, 곧 십분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863년의 배도에서 1989년의 정한 때까지의 백이십육 년은 1989년이 하나님께서 말세의 백성과 만나시기로 정하신 때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교리라는 말뚝들을 하나씩 박아 놓고 모든 성경이 우리의 확정된 의견에 맞도록 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성경 앞에 가져가 진리의 성경으로 사방에서 우리의 이론을 재어 볼 것인가? 성경을 읽고 심지어 가르치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그 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진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오류를 품는다. 그들이 자신의 사상을 옳다고 입증하려고 교리의 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오기만 한다면, 어둠과 눈먼 채로 행하거나 오류를 간직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말씀에 자기 생각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미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모든 이기심과 독창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간직해 온 견해들을 결코 무오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굳어진 전통을 버리려 하지 않은 완고함이 결국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나 성경 해석에 어떤 흠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오래 붙들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한다.

진리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조사와 비판을 위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반대에 부딪혀도 불쾌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40년 전 우리 가운데 소중히 간직되던 정신이었다. 우리는 마음에 짐을 지고 함께 모여, 믿음과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어 계시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쟁점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 모임들은 엄숙함으로 특징지어졌다. 우리는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펼쳤다. 진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준비되기 위해 우리는 자주 금식했다. 간절히 기도한 뒤에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토의했고,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밝혔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간절한 간구가 하늘에 올랐다. 많은 눈물이 흘렀다. 어떤 형제가 어떤 본문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른 형제의 둔함을 책망했을 때, 책망받은 이는 뒤에 그의 형제의 손을 잡고 말하곤 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겸손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지닙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형제도 말하곤 했다. "형제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머리를 숙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통 한 번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네 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 시대를 위한 진리를 이해하고자 성경을 엄숙히 연구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난해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 분명해졌으며, 그리고 나면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과 한 성령이 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어느 누구의 견해에 맞추어 억지로 비틀려 해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힘썼다. 여러 의견이 갈리는 중요도가 낮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차이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던 부담은, 형제들 사이에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합당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었다. 때때로 한두 형제가 제시된 견해에 고집스럽게 맞섰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연구를 중단하고 모임을 파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지 않은 채 하늘로부터의 빛을 구하며 견해 차이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우애를 나누며 헤어졌다가,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만나 추가로 연구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우리 위에 임했고, 분명한 빛이 진리의 요점들을 밝혀 주었을 때 우리는 함께 울고 기뻐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고, 진리는 우리 영혼에 귀중했다. 오늘 우리의 연합은 시련의 시험을 견뎌낼 만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학교에 있으며, 하늘의 학교를 위해 훈련받고 있다. 우리는 실망을 그리스도답게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가르쳐지는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많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매우 많다. 하나님과 하늘만이 무오하다. 소중히 간직한 견해를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고, 결코 의견을 바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단호하게 고집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연합을 가질 수 없다."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7월 26일.